

G20 정상회의 시 주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Security Measures for Protection of VIP in the G20 Summit

이 선 기* · 이 충 수**

〈목 차〉

| | |
|----------------------------------|-------------|
| I. 서론 | IV. 안전대책 방안 |
| II. 이론적 고찰 | V. 결론 |
| III.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 · 집단 및 안전 활동 사례 | |

〈요 약〉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 · 2선(경비구역) · 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주 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행사비표 내에 RFID 기능이 포함된 효율적인 비표운용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첩보 수집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하에 대테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호·행사인력에 대한 유사시 비상대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 대불대학교 경호무도학부 교수, 이학박사(제1저자)

** 용인대학교 겸임교수, 경찰학박사(교신저자)

마지막으로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점**은 첫째, VIP 숙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만작전을 활용하여 불순분자가 오판하여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강력한 ‘군사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관 하에 전·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G20 정상회의, 안전대책, 3선경호원리,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

I. 서 론

세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민족분리 및 극좌·극우주의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3,376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1일 평균 9.25건의 테러가 발생하고, 사망 9,577명, 부상 19,843명으로 1일 평균 사망은 26.2명, 부상은 5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08년과 비교하면 인명피해는 12%(33,279명→29,420명)가 감소하였으나 테러발생 건수로는 5%가 증가하였다. 테러발생 건이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프간에서 탈레반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대선 등 정치일정에 대한 방해목적의反正부 테러공세를 강화하고 탈레반의 세력확장으로 '제2의 아프간화'를 우려한 파키스탄 정부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맞선 탈레반의 보복테러가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테러정세, 2010: 3).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새로운 양상의 문명 간의 대립과 자국의 경제적 우위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대립으로 많은 불안요소를 낳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뉴테러리즘으로, 이는 각국의 정상과 그 외 주요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불안요소는 각국이 국제회의의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안경모, 2004: 5).

국제회의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위치를 확보하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 국제회의를 자국에서 개최하면 자국이 의장국으로서 자국정상의 지도력이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국제회의를 계기로 자국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요국가와의 정상회담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최국가·도시 브랜드 제고에 따라 자국 상품의 홍보효과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자국의 전통을 세계에 홍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관광객들을 더욱 많이 유치케 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며 개최국가 및 도시의 인지도는 물론 정치와 경제 안정도, 행사에 참석한 국가정상과 행사장의 안전보장 및 문화, 사회 등 각 분야별 제반사항 등이 행사개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선기, 2007: 1).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동시다발 테러양상을 보이고 있다(김두현 2010: 37).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몇 가지 불안정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상황으로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1968. 1. 21. 북

한의 청와대 기습사건들과 1983년 10. 9.미얀마 아웅산묘지 폭파사건, 최근에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금강산 문제로 인한 남북경색관계 등으로 볼 때, 북한의 테러공격 가능성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본다. 둘째는 2005년 7월 7일 영국런던에서 선진8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을 때,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감행한 알 카에다 조직이 친미국가, 아프간 전쟁 시 전비를 제공한 국가와 이라크전쟁 파병국에 대하여 보복을 선언한 바 있고, 특히, 2010년 7월에는 아프간에 350명 이내의 치안지원군이 추가파병을 앞두고 있어서 알카에다 조직, 탈레반 등 국제적인 이슬람 과격테러세력 등이 우리나라를 주시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본다. 셋째로 국제회의를 개최를 반대하는 NGO 세력 등에 의한 테러 및 반대 집회시위의 가능성이다. 만약 국내 NGO세력 중에 '세계화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등의 이슈를 내걸은 국제 NGO들과 연대하여 G20 정상회의 자체를 방해하는 과격한 집회시위를 전개할 경우, 인명피해와 행사 연기 또는 중단 사태 등 돌발사태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있어서 숙소를 포함한 핵심장소인 주행사장에서 VIP 신변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VIP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문헌적인 고찰에 의한 수집된 자료에 대해 분석하고자 국내·외 테러리즘에 관한 원서, 각종 테러관련 연구서적, 논문 등 기록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최근에 발간된 간행물 등 각종 문헌자료와 국정원, 경찰 등 테러리즘에 관련된 기관의 발표물, 인터넷 검색, 잡지 및 국내 주요 일·월간지 기사도 참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연구자가 질·양적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2007년 2월에 발표한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병행, 활용함으로써 문헌적인 고찰에 따른 연구방법을 보완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G20 정상회의 개관

1) G20 정상회의 탄생 배경

G20 재무장관회의의 발족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국제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 12월 독일에서 G7과 주요 신흥국이 참석하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출범하였다.

G20 정상회의 출범은 미국發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선진 및 신흥국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위기극복의 대안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으며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G20 재무장관회의' 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회의를 정상급회의로 격상시킨 G20 정상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체제 논의 과정에서 프랑스 등이 G13 또는 G14 체제를 주장한데 대해 G20 재무장관 체제 활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G20 정상회의 체제 출범에 기여하게 되어 2009년부터 G20 의장단(Troika)의 일원으로 국제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한 데다 제일 빠른 경제회복세를 시현하여 국제사회 내 위기극복 수범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신흥·亞洲국가 中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되었다(한국경제연구원, 2010:3).

2) G20 정상회의의 구성 및 회원국 현황

회원국들이 아시아·유럽·미주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안배 된데다 신흥국이 고루 참여하여 세계국가들의 다양한 이해에 대해 대변이 가능하고 쏠 세계 인구의 약 67%와 GDP의 약 85%를 차지하는 글로벌 리더 그룹으로서 종전의 G7체제 보다 대표성이 강화되었다. 국가별 전체 GDP에서는 중국·브라질 등 신흥국이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1인당 GDP는 아직도 선진·신흥국간 차이가 확연하며 GDP 성장률에 있어서 신흥국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간에도 순위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별 경상수지에 있어서는 선진·신흥국간 차이보다는 오랜 무역관습 및 산업적 특성에 따라 구조화된 불균형이 존재한다.

| |
|--|
| ◇ 총 면 적 : 78,005,000 평방킬로미터(전 세계의 68.2%) |
| ◇ 총 인 구 : 약 45억명(전 세계의 67%) |
| ◇ GDP 비중 : 약 52조 US달러(전 세계의 85%) |
| ◇ 총 교역량 : 약 13조 US달러(전 세계의 74.4%) |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2010, p.11

회원국은 G7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과 G8국가인 러시아, G14국가인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사우디와 G20국가인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터키, EU의장국이다.

3) G20 정상회의 경과 및 향후 일정

제1차 G20 정상회의는 2008. 11. 14~15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위기를 맞아 G20 차원에서의 대응을 모색한 출범회의로 금융부문 개혁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제2차 G20 정상회의는 2009. 4. 1~2.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고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간 정책공조 시급성을 재확인하고 재정지출 증대금 5兆弗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시키기로 하는 등 주요정책에 합의하였다. 제3차 G20 정상회의는 2009. 9. 24~25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었으며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관련하여 경제회복이 불완전하고 위험요인이 여전히 많다는데 공감하고 지속적인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출구전략은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 국제공조 속에서 실시한다는 기조 하에 2009년 11월 4차 G20 재무장관회의 시 추가 논의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2011년부터는 년 1회씩 G20 정상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제4차 G20 정상회의는 2010. 6. 26~27.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는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2010. 11. 11~12간 개최할 예정이며 제6차 G20 정상회의는 2011년 11월 중 프랑스(개최도시는 미정)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표 1〉 G20 개최국 현황

| 순위 | 일 자 | 개최국(도시) | 순위 | 일 자 | 개최국(도시) |
|-----|---------------|----------|-----|---------------|----------|
| 제1차 | 2008.11.24~25 | 미국(워싱턴) | 제4차 | 2010.6.26~27 | 캐나다(토론토) |
| 제2차 | 2009.4.1~2 | 영국(런던) | 제5차 | 2010.11.11~12 | 한국(서울) |
| 제3차 | 2009.9.24~25 | 미국(피츠버그) | 제6차 | 2011. 11월 中 | 프랑스(미정) |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서울 G20 정상회의 Guide Book, 2010.

4) G20 정상회의 성과

세계경제가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예상보다 빨리 회복단계에 진입한 것은 회원국이 2009~2010년간 총 5兆弗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등에 합의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 붕괴를 방지하고 경기회복에 견인한데 기인했다고 할 수 있으며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이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보호무역주의 저지와 배격에 합의하였다.

한편, 금융위기 재발방지 차원에서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사항인 투표권 및 首長 선출방식 조정에도 착수하였으며 세계의 공존공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빈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부터 G20 논의 범위가 ‘위기 이후의 관리체제’(Post-Crisis Management)로 확대하였고 현재까지는 긴밀한 국제공조로 세계경제 조

기회복을 견인했으나 위기진전 이후에는 국가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28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통해 금융기구 개혁 등 합의사항 충실 이행,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 비회원국에 대한 원조 확대를 'G20 3대 운영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2. 국제회의의 포괄적 의미 및 준비기획단

1) 국제회의의 정의

국제행사에 관한 규정으로 1999년 9월 8일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법령인 국무총리훈령 제391조에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장신, 2003: 3).

국내에서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제회의라 함은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써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당해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해야 하며, 회의 참가자가 300인 이상으로 그 중 외국인이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3일 이상 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상에는 국제회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심포지움, 전시회, 박람회, 기타 회의로 규정하고 있다(이선기, 2007: 12).

2) 국제회의의 성격

첫째, 여러 국가 간 관련 문제와 협력에 관하여 행하는 일련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 간 협력과 문제 해결, 각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둘째, 국제회의는 국가 간의 문제와 협력을 위한 수단이므로 상호간의 의견과 결정을 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국제회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목표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문제 해결의 과정과 절차 면에서는 수단으로서 성격을 지니지만 이러한 수단의 결과는 목표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선기, 2007: 13).

3) 국제회의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국제회의의 중요성은 참가자들이 일반관광객에 비해 장기간 체류하면서 회의기간 중 국내

관광과 쇼핑을 하므로 대량 관광객 유치효과를 가져다주는 종합산업으로서 교통, 항공, 숙박, 유흥업, 관광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국제행사는 계절별 변수가 비교적 적어 비수기 타개책으로 활용되므로 오늘날 국제회의 산업은 관광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는 대개 그 나라의 지도층 인사이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이 길고 소비수준이 높아 외화 획득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제행사가 갖는 중요성과 그 효과는 실로 크다. 또한 개최국의 국가홍보 및 관광진흥, 문화선양, 환경개선 등에 지대한 효과를 나타내며, 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긴장완화 및 각종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이선기, 2007: 13).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주최측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제회의는 국내·외 관계자들이 각자의 지식, 정보, 연구결과 등을 가지고 모여 이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둘째, 국내·외 관계자에게 주최측 존재의 중요성 및 공헌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이를 통해 주최측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국제회의의 각종 프로그램 특히 사교행사를 통해 참가자간의 인적교류가 증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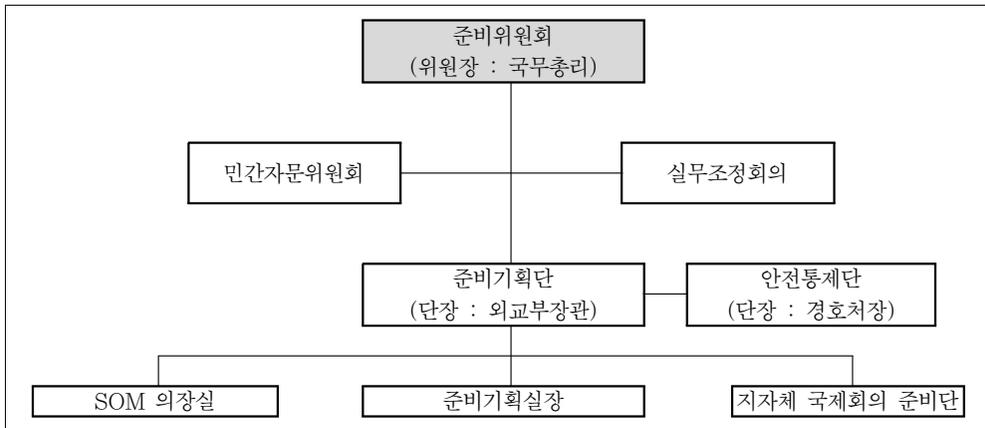
개최 도시·국가의 입장은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개최도시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며, 국제회의의 진흥은 국제적인 인적교류 및 참가자 상호간의 직접적인 정보교환으로 국제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국제회의는 외국과 직접적으로 교류하여 지식 및 정보의 교환, 참가자와 일반국민과의 교류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에게 국제 감각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 지방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국제행사 유치, 계획, 운영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동안에 지방의 다양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의 기존기능으로는 불충분한 기능이 필요해지고 지역에서는 이 같은 기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국제적인 도시라는 위치를 갖게 되어 세계적으로 지명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호텔, 국제행사 용역업체, 여행사, 이벤트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비수교국이나 비동맹국대표가 다수 참가함으로써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 구현에 기여하게 되고, 또한 국제행사 참가자는 대부분 해당 분야의 영향력 있는 고위지도급 인사로 구성되므로 민간 외교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지대하며 일본, 구미, 동남아 편중의 한국관광 홍보를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으며, 국제행사 참가자는 각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고위지도급 인사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지위 향상, 문화교류, 민간차원의 외교, 나아가서는 국가 외교차원에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이선기, 2007: 16).

4)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준비기획단은 준비기획실과 기획총괄부, 총무의전부, 협력사업부, 홍보부, 특별의전부 등 5개부로 구성되며, 대외협력 및 교섭전략을 개발하여 국제회의의 전문인력 및 국제회의의 준비요원의 양성과 국제회의장, 숙소관련시설 확보 등 사업추진 기본계획수립, 공공을 비롯한 민간역량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총집결하고 법제정비 및 국민의식과 관행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회의의 완벽한 성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준비기획단은 숙소, 차량, 예산확보, 국제회의의 선발대 접수, 브리핑, 등록업무, 홍보 등 행사준비업무를 총괄 준비하는 기관이다(부산APEC 기획단, 2005:32). 준비위원회 구성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준비기획단은 국제회의의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회의를 수립하고 제반 준비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와 기획단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조정회의를 구성한다.

<그림 1> 국제회의의 준비위원회 구성도



출처: APEC기획단, 2005 APEC정상회의, 2006, p.14

또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계와 예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사회원로 등으로 구성된 고위자문회의, 문화행사, 배우자행사, 전통의상, 홍보, 국민참여업무, 회의운영 등 7개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민간전문가들은 국제회의장의 선정 및 건설계획, 국제회의장 준비, 국제회의의 로고제작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외교부, 2005 APEC정상회의, 2006: 자료 편집).

3. 3선경호원리의 개념

3선경호원리는 대다수의 국가가 VIP 경호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호의 기본원리로 VIP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내부·내곽·외곽으로 구분하여 3선으로 중첩하여 책임구역을 나타낸 경비개념이다. 영국의 3선경호원리는 근접경호, 중간경호, 외곽경호로 구분하며 거리나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비중을 두며 오히려 외곽경호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특징이 있으며, 미국의 3선경호원리는 경호행동 반경을 거리개념으로 정립하였다(김현진, 2007:218).

우리나라의 3선경호원리는 1974년 8월 15일, 범인 문세광에 의해 영부인을 잃은 후 경호 활동조치가 강화되었는데 당시에는 VIP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지하, 지상, 공중개념으로 규정하다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파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과 같이 거리개념에 의한 3선개념으로 변경 되었다. 3선경호는 3선으로 경호구역을 나누고 단계적으로 중첩한 경호조치를 취하며 거리개념은 행사의 보안성 유무, 행사성격, 정·첩보사항 유무, 행사지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1선(안전구역)은 범인이 VIP의 신변에 결정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구역으로 VIP가 사용하는 승하차지점과 동선이 포함되며 수류탄 투척거리 및 권총 유효사거리를 고려하여 반경 약 50m를 설정한다. 1선 내에는 문형 금속탐지기, X-Ray 및 비표운용을 통해 참석자와 반입물품에 대한 검색 및 정밀검측으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완벽한 통제개념의 경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선(경비구역)은 1선을 확보하기 위한 경호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통상 옥내행사는 건물내부를 지정하며, 옥외행사는 행사장 담장을 연하는 선으로 정하고 옥외행사에서는 소총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하여 행사장 반경 약 600m를 설정하고 있다. 경비구역에서는 행사장 주변의 취약요소와 진출입로의 각종 위험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실시되며 선별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행사관련 정·첩보사항의 수집이 중요시 되며 곡사화기인 박격포 유효사거리를 고려하여 행사장 반경 약 2Km를 설정하며 고층건물에 관측조가 운용, 감제고지에 대한 수색과 안전확보, 행·환차로와 진입로에 대한 유동순찰 및 안전조치, 행사장 주변 공사장 및 행사지역 주변의 총포·화약류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Ⅲ.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 · 집단 및 안전활동 사례

1. 국제회의의 행사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

1) 요인 테러

요인테러는 전쟁의 공포 못지않게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유사 이래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인류 최대의 범법행위 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요인테러는 정치·사상적 입장이 다른 특정국가의 집권자나 정치 및 사회, 종교계의 지도자를 암살 또는 납치하여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단결을 와해 시킴으로써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이황우·곽대경, 2005: 78). 이에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요인에 대한 테러에 대비하는 것은 경호활동의 중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要人테러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테러의 한 형태로 고대 로마제국 쇠퇴기에 발생했던 황제 암살이나 십자군 전쟁 그리고 종교개혁 등을 거치면서 발생했던 일련의 암살, 제정 러시아, 바이마르 공화국, 중남미 제국 등과 같이 정치적 격변기에 이루어진 암살과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던 오스트리아의 왕위계승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의 검은손'이라는 범 세르비아 조직의 대원인 가브릴로 프리키프에 의해 암살된 이후 1995년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수상이 암살되기까지 수많은 국가지도자 및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희생되었으며, 인류가 사회 및 국가를 만든 이래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최진태, 1998: 37-38).

요인 테러의 사례로 폭탄테러, 저격, 쿠데타, 암살 등으로 재임 중 피살된 세계 각국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1993년 5월 1일 스리랑카 「프레마다사」 대통령 폭탄테러로 사망하였다. 1994년 4월 6일 르완다 키갈리 공항에서 「하비아리마나」 르완다 대통령과 「은타 리야미나」 부룬디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로켓포에 의해 폭발되어 양국 대통령 등 12명이 사망한 사건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르완다 내전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1995년 11월 4일 유대인 극우파 대학생의 흉탄에 쓰러진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1996년 4월 23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체첸공화국의 「두다예프」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많은 지도자가 암살을 당하였다.

2) 인질 테러

인질테러의 대표적 특징은 계획성, 동기성, 요구성, 자해성, 다수성 등을 들 수 있다(김두현, 2004:106). 첫째, 계획성은 수개월 수년간에 걸쳐 테러리즘 대상을 탐색하고 테러방법

을 연구한 뒤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다. 둘째, 동기성은 정치적 이념, 종교, 민족, 집단적 이해관계나 원한 등이며, 인질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는 이런 동기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얻고 자신들의 목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요구성은 테러범에 의한 인질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일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질의 희생 가능성이 다른 형태의 인질사건에 비해 매우 높다. 넷째, 자해성은 대부분의 테러범들은 순교자가 되기 위해 자살을 불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다수성은 1명의 인질범에 의한 경우보다는 다수의 인질범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인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인질 테러의 대표적인 사례로 페루 일본대사관 검거사건은 1996년 12월 17일 오후 8시 30분경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일본 국왕 히로히토 탄생기념 리셉션 중이던 페루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페루의 좌익 테러단체인 'MRTA' 소속 18명이 폭탄을 터뜨리며 난입하여 각국 대사, 페루정부 요인 등 395명을 인질로 잡고 수감 중인 게릴라 440명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4개월간의 인질극을 벌이다가 1997년 4월 22일 페루 특공대 140여명이 공격용 땅굴을 통해 진입하여 인질범을 전원 사살하고 인질 72명 중 71명을 무사히 구출한 사건이다(김두현, 2004: 119-122).

또한, 체첸반군에 의한 모스크바 돔 쿨트로 극장 인질사건은 2002년 10월 23일 공연 중이던 모스크바 돔 쿨트르 극장에 무장한 체첸 반군 40명이 관객 등 912명을 인질로 잡고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인질극을 벌이다가 3일 만에 마취가스를 살포하고 진입한 특수부대 '오몬'에 의해 인질범과 인질 등 150여명이 사망하고 종료된 사건이다.

3) 폭탄 테러

폭탄테러는 테러리즘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세계 테러사건의 30%를 차지하는 상습적인 수단으로 분쟁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테러리즘에서 사용되고 있는 폭탄의 종류로는 편지·소포폭탄 등의 비교적 소형인 것부터 자동차 폭탄과 같은 커다란 파괴력을 가진 것까지 광범위하다.

최근에는 강력한 폭발물을 사용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폭발로 인한 파괴를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및 시간대를 겨냥하는 등 그 수법도 점점 흉악화 되고 있다(김두현, 2004: 132). 이에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행사장과 참석자 숙소, 차량,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폭탄테러 중 차량폭탄 테러는 다량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표적의 내부와 외부에 비밀리에 설치하기 쉽기 때문에 주로 무차별 테러리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격조작에 의해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폭파시간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차량폭탄 테러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1995년 4월에 168명의 사망자와 500여명의 부상자를 낸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사건과 1998년 8월에 224명의 사망자와 5,000여명의 부상자를 낸 탄자니아와 케냐의 미국 대사관 동시 폭파사건 등이다(Hewitt, C, Understanding Terrorism in America, 2003:235).

자폭 테러는 폭탄을 가슴에 품거나 등에 짊어지거나, 몸에 감는 과격파 원리주의자의 지하테러리스트 조직이 자신과 함께 표적을 폭파하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Hewitt, 2003: 239).

이러한 자폭테러를 과격파 조직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고 마스크의 관심을 집중시켜 후속범행을 재촉할 수 있으며, 기동성이 있는 시한폭탄보다 임기응변의 작전이 가능하고 테러범의 폭사로 배후조정의 색출 및 수사가 어렵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폭공격은 공격 후의 탈출방법이나 공격자의 구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공격이 지극히 단순화됨으로 그 만큼 성공의 확률이 높다(John Richard thackrah, 2004: 86).

4) 다중이용시설 테러

최근에는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는 열차나 지하철 및 버스 등의 공공수송기관을 테러리스트들이 공격대상으로 삼는다. 사건 수는 적지만 열차 폭파테러, 지하철 폭파테러, 버스 폭파테러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통시설은 많은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그 피해의 규모는 대단히 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역 테러사건으로 2004. 3. 11 07:39 첫 폭발음을 시작으로 일일 평균 65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 아토차역을 통과하는 4개의 교외선 통근열차에서 10개 폭탄 총 200Kg이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202명이 사망하고 2,000여명이 부상한 사건이며, 런던 7·7테러사건은 2005년 7월 7일 오전 런던의 3개 지하철역과 버스 등 4곳에서 연쇄적인 폭발로 56명 사망, 700여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7월 7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런던 금융 중심가인 리버풀 스트리트역과 올드게이트 이스트역 사이의 지하철에서 연쇄적으로 폭탄이 폭발하였고 이어 에지웨이 로드역, 킹스 크로스역과 러셀 스퀘어역 사이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며 타비스토크 스퀘어에서는 2층 버스에서 폭발이 발생하였다(이전기, 2007:128).

1996년 7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는 통근열차에 대한 폭탄테러리즘으로 70명의 사망자와 약 600여명의 부상자를 낸 테러리즘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속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리즘은 1995년 7월~11월까지 알제리의 무장이슬람집단(GIA)이 파리의 고속지하철에

대해 9회의 연쇄폭탄테러리즘을 자행하여 사망 8명 부상 150명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1996년 12월에도 프랑스 파리지하철 폭파테러리즘 사건으로 4명이 사망 91명의 부상자를 낸 바 있다(김두현, 2004: 230).

5) 항공기 테러

항공기 폭파테러리즘은 비행 중의 항공기를 폭발에 의해 추락시켜 수백 명의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는 흉악한 테러리즘이다(김두현, 2004: 140). 국제회의 참석을 위하여 항공기 이용이 필수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기 폭파테러리즘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1985년에 329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 항공기 폭파사건, 1987년에 115명의 사망자를 낸 대한민국의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과 1988년에 270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아메리칸 항공기 사건 및 1989년 170명의 사망자를 낸 UTA 프랑스 항공기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항공기 내 폭파테러리즘도 추락까지는 가지 않지만 비행 중 혹은 이륙 전의 항공기 내에 폭탄을 장치하여 승객을 사상시키는 항공기 내에서의 폭파테러리즘도 발생하고 있다. 항공기 내의 폭파테러리즘은 범인이 교묘한 수법으로 폭발물을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 폭발물을 장치한 다음 테러범은 탑승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사건의 대표적인 테러사건으로, 1994년에 필리핀 항공기 내 폭파사건으로 폭탄의 재료인 액체 글리세린 용기, 디지털 손목시계 등을 사용하여 화장실 안에서 소형폭탄으로 조립하여 좌석 밑에 장치한 후 테러범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 폭파하여 이 사건으로 일본인 1명이 사망하였다(이황우·곽대경, 2005: 94).

2.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

1) 북한

(1) 북한에 의한 테러가능성

북한이 대남적화전전략을 고수하는 한,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가능성 중에서 가능성도 가장 높고 위협정도에 있어서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김창순, 1996: 24).

북한이 국내에서 직접 테러를 감행한 대표적인 예로는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4년 이후 휴전선 땅굴 굴착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1998년에는 동해 잠수정 침투 및 목호

무장간첩 침투사건, 여수 반잠수정 침투사건 등 크고 작은 대남테러와 도발을 수없이 자행해 왔다(국방부, 1999: 24). 이와 같은 북한의 주요 대남테러 및 도발사례는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북한이 국외에서 테러를 감행한 대표적인 예로는, 1983년 미얀마 아웅산사건과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외국에서 테러를 직접 강행하게 된 것은 국내에서 직접 테러를 가하는 것보다 해외가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때, 북한의 대남침투에 대한 국내 대비태세가 더욱 확고해 질수록 북한은 해외에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이 대남도발의 일환으로 국내로 무장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요인암살을 꾀하는 행위 등은 테러라고 규정하기보다 비정규전의 한 형태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전면적인 무력대치 상황을 감안할 때, 무장간첩 침투나 요인암살 등이 비정규전에 보다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Everett L. Wheeler, 1991: 15). 그렇지만 북한이 남한에 대해 그러한 도발을 하는 것 자체가 국내적으로 전 국민에게 심리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테러적인 측면이 강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소규모 도발은 일반적인 정치테러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테러에 포함시켜 대비해야 할 것이다.

<표 2> 북한의 주요대남테러 및 도발사례

| 일 자 | 내 용 | 일 자 | 내 용 |
|--------------------|---------------------------------------|------------|-----------------|
| '60. 12.15. | 여객선 경주호 남북기도사건 | '74. 4.2 | 1사단 무장공비침투사건 |
| '61. 1 | 반정부/반미공장 간첩사건 | '74. 8.15 | KAL기 남북미수사건 |
| '67. 1 | 해군경비함 56호 격침사건 | '74. 11~ | 땅굴 3개 발견 |
| '68. 1.21 | 124군부대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 '76. 8.18 | 관문점 도끼만행사건 |
| '68. 1.23 | 미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 '77. 7.14 | 미 헬기 격추사건 |
| '68. 11.23 |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120명) | '83. 10.9 |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
| '69. 4 | 미 정찰기 EC121기 격추사건 | '83. 12.3 | 다대포 간첩 침투사건 |
| '69. 8 | KAL기 납북사건 | '84. 9.24 | 대구 무장간첩 침투사건 |
| '69. 12 | 미 59항공대 피격사건 | '86. 9.16 | 김포공항 폭파사건 |
| '67~'69 (일자 미정) | 무장공비 침투사건 (경읍, 영월, 서산, 파주, 단양, 괴산) | '87. 11.29 | KAL 858기 폭파사건 |
| '67. 9. 5 | 초성리 열차 폭파사건 (운정·문산 등) | '92. 5.22 | 김낙중/황인호 침투/복귀사건 |
| '67. 5 | 승용호 어선나포사건(그 외 20여척) | '95. 10.17 | 1사단 무장공비침투사건 |
| 일자 미정 | 한국군 기습사건(12·28·7사단) | '95. 10.24 | 부여 무장공비침투사건 |
| 일자 미정 | 미군 2사단 기습사건 | '96. 9.18 |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 |
| | | '98. 9. | 양양 무장공비침투사건 |

출처: 육군대학, 적전술 보충교재, 2002. 1. p.372 및 월간조선, 2010. 5월호 pp.97-98.

(※ 진한 글씨: 1967년~1970년간 軍이 대남공작의 주도권을 장악하던 시기의 도발사건)

국가정보원은 2004년 12월 8일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식 간담회에서 탈북자 중 북한으로 돌아가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거나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200~300명에 대해 출입국 및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세계일보, 2004. 12. 9일자 15면).

2) 이슬람 과격집단

지난 9·11사태와 2005년 7월 7일 영국 런던에서 선진 8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을 때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감행한 알 카에다 조직이 친미국가 및 미·아프간전쟁 시 전비를 제공한 국가와 이라크 파병국에 대하여 보복공격을 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알 카에다 조직이 노리는 미군시설이 무수히 산재되어 있으므로 반미 이슬람국가의 테러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라크 파병 당사국으로서 2010년 7월 아프간에 350명의 치안지원군을 파병할 예정이므로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공격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이목이 집중된 G20 정상회의장에서 테러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이슬람 노동자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다. 주 테러 지원국인 중동 국가의 체류자가 20여 개국 15,000여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테러리즘에 대해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슬람 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고향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며 한국에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 저임금, 그리고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들에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코리안 드림에 대한 기대가치와 실익 사이의 괴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들의 기대가치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심리적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것은 곧 폭력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우범형사정책연구회 譯, 2000: 181-183).

3)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및 국내단체

NGO는 1863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적십자운동이 그 효시로 현재는 기업·시장과 더불어 제3의 영역으로 뚜렷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 제5부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다(신광영, 1999: 22).

NGO조직은 행동의 지속성, 정치적 독립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비영리 활동을 특성으로 하여 1992년 '리우 지구환경 회의'에서는 171개국에서 온 9천여 NGO가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1995년 덴마크에서 열린 UN 사회개발정상회의는 NGO를 지구촌 과제 해결의 공식파트너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김두현, 2004:9).

현재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NGO는 1만 5천여 개, 회원 수는 3천만 명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 NGO 단체의 총 회원은 약 15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활동분야는 정부의 권력감시, 인도주의적인 봉사활동, 환경보호, 여성, 인권, 노인 빈민구제, 난민구호, 국가 간 분쟁중재 등으로 다양하며, 21세기는 제5의 권력으로 불리는 NGO의 활동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진다(이선기, 2007: 52).

NGO조직의 영향력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UN 모두 NGO의 협력을 정책 성패의 관건으로 삼을 정도로 NGO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화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등을 이슈로 내걸면서 국제 NGO들이 연대하여 국제회의의 자체를 방해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경찰청, ASEM보고서, 2002: 131). 세계화·신자유주의 등에 반대해온 국제 NGO 단체들이 연대하여 과격한 집회·시위를 전개할 경우 인명피해·행사중단 등 돌발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NGO 단체의 주요 국제회의의 반대시위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NGO 단체의 안전 위협사례는 국내 노동·사회단체들이 국제회의의 반대를 위한 전국단위의 조직을 구성하고 세부 행동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이들 단체의 과격시위에 따른 행사분위기 저해 및 행사시 충돌사태의 개연성이 높다. 2000년 제3차 서울 ASEM 회의의 경우 민노총·시민협·민가협 등 국내 136개 단체들이 ASEM 한국 민간단체 포럼을 결성하고 아시아·유럽 NGO와 연대하여 COEX 인근장소에서 대규모 가두집회를 계획하였다가 정부 측의 설득으로 집회장소를 변경한 사례도 있다(경찰청, 'ASEM 결과보고서', 2002).

<표 4> NGO 단체의 주요 국제회의의 반대시위 사례

| 일 시 | 개최지 | 회 담 명 | 반 대 사 례 |
|----------|----------|-----------------|---|
| 1999. 11 | 미 국 시애틀 | WTO 각료회의 | 4만여 명의 NGO·대학생·시민 등 시위대가 반세계화 등을 주장하며 격렬 시위를 전개, 시애틀지역 비상사태 선포 및 회담취소 |
| 2000. 9 | 체 코 프라하 | 「IMF·IBRD」 연차총회 | 전 세계 350여 단체 1만 2천여명의 시위대가 반세계화 시위 전개, 경찰과 무력충돌 사태로 발전하자 당초일정을 축소하여 조기 폐막 |
| 2001. 1 | 스위스 다보스 |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 1천 200여 명의 시위대가 행사장 진입로 차단 및 회의장 진입 시도, 「다보스포럼」참가자 1,400여명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해킹, 인터넷 공개 |
| 2001. 6 | 스웨덴 에텐보리 | EU 정상회담 | 6천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 2백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시위가 격화되어 만찬장 장소 및 대표단 숙소 변경 |
| 2001. 7 | 이탈리아 제노바 | G-8 정상회담 | 반세계화 시위대 15만 명이 도심에서 극렬시위를 전개, 일부 시위대가 은행 및 상점을 파괴하여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 1명 사망 |
| 2004. 4 | 미 국 워싱턴 | 「IMF·IBRD」 연차총회 | 1만 5천여 명의 NGO·시민 등이 반세계화 시위, IMF·IBRD 본부건물을 인간사슬로 포위함에 따라 행사참가자 도착 지연, 회의진행 차질 초래 |

출처 : 경찰청, 제3차 'ASEM 결과보고서' 서울경찰청, 2002, p.131

국제회의 개최 반대세력은 전국민중연대로 2005년 3월 8일 광주에서 민노총·전농·한총련 등이 지역 지도부회의를 개최하여 부산 APEC 저지를 위한 민중대회를 총력 투쟁키로 결의하였고 부산지역 민노당·민주노총·전교조 등은 3월 17일에 전교조 부산 지부에서 가칭 신자유주의 세계화 APEC 공동대응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2005 부산 APEC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APEC의 부정적 실체 부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조선일보, 2005.3.9일자 13면) 전국 2,000여명을 목표로 APEC 저지 실천단을 발족하여 국내·외 NGO 등과 연대투쟁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반미세력으로 국내에는 미군시설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외국공관 등 테러대상 시설과 이슬람권 및 CIS권 국가의 국민들이 다수 체류하는 등 테러 취약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0년 알 카에다가 9·11테러 모의 당시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공중충돌 테러 계획을 수립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현재 국내에는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이 90,000여 명에 달하는 등 테러 빈발국가 국민들의 출입국이 늘어나고 있어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국정원, 2005: 132).

3. 주요 국제회의 안전활동 사례

1) 제4차 필리핀 마닐라 APEC 회의

행사일정은 1996년 11월 19일~11월 20일까지 2일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APEC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경호환경으로는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미국, 일본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해안선 및 공안요원들의 부패, 인질납치사건의 빈발 등 사회구조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당시 라모스 대통령이 연일 TV 생방송에서 APEC 회의와 관련된 행사홍보를 통해 한 건의 불미스런 사건도 발생치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선박의 입항과 네팔인 신분을 위장한 북한 공작원의 필리핀 잠입 정보가 입수되어 회원국 경호요원들이 행사기간 내내 긴장된 가운데 경호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정세였다(박용석, 2000: 40).

필리핀 당국은 1996년 3월부터 APEC회의 행사에 대비한 경호체제를 정비하고 단계적인 훈련 및 준비를 지속한 가운데, 6개의 특별TF팀을 편성 운영 하여 총 15,000여명의 경호요원들로 하여금 특별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행사기간 중 동원된 군경요원 간 상호 유기적 통제 및 긴밀한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적절한 경호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현장배치 공안요원들의 이완된 근무체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조치 능력이 극히 미비하였다. 그 예로 참가 정상 입국 시 공항에서 숙소 이동시에 정상의 모터케이드 정차상황까지 발생하였고, 마닐라의 협소한 도로여건에도 불구하고 APEC 전용차선제의 실시로 마닐라

시내는 일반차량으로 인한 최악의 교통체증을 초래하였으며 국민의 경호측면에서도 수많은 허점과 실패사례를 낳았다(이선기, 2007: 56).

행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 제4차 마닐라 APEC 회의 행사는 국제회의 행사의 전형적인 실패사례로 낙인찍혔고, 필리핀 공안당국의 업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손상에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다. 또한 필리핀 경호당국에서는 국민 입국 시 경호활동 상에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케이드의 정지사태까지 발생하였고 일반차량들까지 뒤섞여 최악의 교통체증을 초래한 것도 유관기관간의 사전준비 소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국가의 국제적 위신 하락과 공안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국제무대에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용석, 2000: 60-61).

2) NATO 창립 제50주년 기념행사

행사일정은 1999. 4.23~25 동안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어 워싱턴 D.C 역사상 최대의 국가정상회의로 경호기관인 S.S를 비롯한 연방 경호유관기관들이 총력 경호체제를 구축하여 참가국 국가정상 안전은 물론, 미국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종료할 수 있었다.

경호 환경으로는 NATO군에 의한 유고공습으로 인해 최초 계획했던 축제 분위기 속에서의 회의진행을 대부분 취소하고 엄중한 경호환경 속에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행사간에는 미국 주도의 유고공습 및 반전시위가 지속되었다. 특히 NATO 정상회담 관련 하루 20여건의 위해협박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었고 멀지 않은 장래에 백악관이 화학, 방사능 테러공격 목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한 경호환경이었다(U.S. News & World Report, 1999.4.19:6).

美 SS 경호조치의 최대 주안점은 저격과 폭탄적재 차량테러 및 화학·방사능 공격에 대한 거부대책 수립으로서 행사기간 동안 백악관 주변 연방청사 밀집 지역이 폐쇄되고 9만 여명의 연방 공무원과 공립학교는 휴무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변 일대의 지하철 및 버스 운행노선에 대해 무정차 통과조치 및 운행노선을 변경하도록 조치하였고 행사장 주변은 정부 발급 비표 부착자만 보행 가능토록 통제하여, 시민들의 생활권을 다소 침해하였지만 CIA를 비롯한 국가정보기관에서는 반미, 반정부 세력들의 동향에 대해서 행사기간 내내 철저한 감시체제를 수립하여 다른 국제행사보다 정밀한 경호지원 방안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이 행사는 악화된 경호환경 속에서도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표본으로 경호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었다(이항우·곽대경, 2005: 142).

그 외 행사에 대한 평가로는 NATO 정상회의의 개최에 앞서 美 SS는 NATO의 유고공습에 따라 미국 내에 국제테러분자들의 동향에 대해 CIA, FBI 등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

여 행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테러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악화된 경호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인 경호경비작전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미국 SS의 최고 책임자인 스탠퍼드 경호실장의 경호여건 및 상황에 대한 언론발표는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U.S. News & World Report, 1999.4.19: 58).

행사기간 중 요인들의 정상회의가 개최는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하는 지역에서 평화적 시위개최를 허용하고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등 비정부 단체들의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가피한 통제지역으로 판단 시에는 과감하게 경호구역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요소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부 정책상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해 나갔다(U.S. News & World Report, 1999.4.19: 60).

3) 제3차 서울 ASEM 회의

행사일정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제3차 ASEM 서울회의는 한반도 유사 이래 처음으로 세계 26개국 정상이 방한한 행사였다.

ASEM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적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보안활동 강화와 적극적인 안전위해정보 수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0. 9. 10~9. 17. 8일간, 16개 국내선 공항보안활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00. 10. 16~10. 22일간은 김포공항 및 제주공항 보안활동 특별점검을 하는 등 국내선 공항보안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2000. 10. 13~10. 22일간, 국내선 탑승객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위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의 기내 탑재를 차단하고 VIP 특별기 승객에 대한 신원·휴대품 정밀검색을 실시하였다.

인적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로는 ASEM 행사 관련자 등에 대하여 긴급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신원특이자 등 인적위해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명단을 파악·관리하고 있다가 행사에 임박하여 1:1 근접감시 및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특별 관리하여 행사장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국내선 공항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보안활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098명 중 신원특이자 143명에 대하여는 1:1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기타 인원은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였다(서울경찰청 ASEM 보고서, 2001: 60-61).

물적 취약요소 안전활동으로 총포, 화약류 등 물적 취약요소에 대하여 3단계별로 D-7부터 재고조사 실시 후에 취약요소를 정밀 분석하여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D-1, 18:00까지는 사용제한 및 가영치, 격납, 봉인 등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9. 25~9. 29까지 5일간 지방경찰청별로 불법 총기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7건을 단속하고 구속 1명, 불구속

17명을 체포하였으며 권총 1, 공기총 2, 모의총 12점 등 총 19,870점을 압수하였다.

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로 남산지역 수색과 관련하여서는 남산 철조망 외곽 공원·등산로 등 민간인 출입지역은 경찰이 전담하고 철조망 안쪽의 민간인 출입금지지역은 軍이 전담하여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였고 軍에서는 곡사화기 유효사거리를 남산 도서관, 남산 케이블카 타는 곳의 민간인 출입지역까지 경찰에서 수색과 순찰조 운용 등을 실시해 주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나 숙소인 신라·하얏트호텔에서 먼 거리로 위해성이 희박하여 방법 등 일반적인 치안활동에 주력하기도 하였다(서울경찰청 ASEM 보고서, 2001: 62-63).

4) 제11차 태국 방콕 APEC 회의

행사일정은 2003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다. 태국 방콕에서는 총 두 차례의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제1차 정상회의장은 Government House(총리공관)에서, 2차 정상회의는 Ananta Sanmakhom Hall(구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었으며, 각료회의 및 기자회견 장소는 Queen Sirikit(국립컨벤션센터)가 사용되었다(부산광역시, 2005: 55).

경호활동 수준은 회원국들의 안전담당자들과 함께 위험수준을 평가한 후 결정하였다. 각 정상회의의 경호실무팀은 각 회원국에 배치되는 태국 경호팀장, 배정받은 회원국 정상과 동승하는 태국 경호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책임질 여러 명의 경호요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경호원은 각 정상의 배우자, 장관에 배정되었다(부산광역시, 2005: 57-58).

각국 정상들의 특별기 착륙 후 전용기는 태국 왕실 공군본부의 지구와 공군 항공터미널에 대기시키고 두 곳 모두 방콕국제공항 내에 위치시켰다. 특별기가 도착하기 전 태국 경호단은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VIP 라운지, 인접지점 주변지역을 경비했다. 회원국들은 특별기 착륙 시 항공기 내부경비를 책임지고, 태국 경호단은 특별기 주변의 경비를 담당하고 외부경비와 24시간 감시를 담당할 경비요원을 배정하였다.

모든 VIP차량은 태국 안전통제단의 기술, 보안점검을 받았으며, 반입되는 차량은 APEC 번호판을 부여받고 태국 경호차량이 인도할 경우에만 도로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 정상과 장관이 탑승할 경우 태국 경호단과 각 회원국의 경호원이 경호를 담당했다. 태국 경호단은 주차된 VIP차량을 24시간 보안감시하고 필요시에 각 회원국의 경호원과 공동으로 담당하였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APEC 행사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태국 경호통제단은 행사성격에 따라 적절한 교통통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태국 경호통제단은 정상, 장관과 배우자들의 이동로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이동로를 따라 경찰을 배치하는 등의 엄격한 교통통제 조치를 채택하고 교통이 복잡한 교통요지를 포함하는 주요 교차로와 도로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비상시 사용될 예비코스를 마련하도록 하였다(부산광역시,

2005: 62).

정상들의 숙소인 특급호텔에는 출입이 허용된 ID카드를 가진 경찰관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고 회의장소와 정상들의 숙소 주변 5km이내에는 철저한 검문검색이 이루어져 폭발물 등의 반입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러한 검문활동을 위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비포를 착용한 사복 경찰관들이 동원되었다. 특히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특수 정보요원들은 전세계의 주요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인상명세정보를 수집하여 공항이나 주요지역에서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경찰관들은 공항, 대사관, 영사관, 버스정류장, 교통시설, 백화점, 중심지의 업무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회의장소나 정상들의 숙소 및 APEC 관련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경찰들은 각 가정과 건물을 방문하여 주인과 세입자 및 사용자를 건물등록대장과 비교하여 확인하고 주민들과 택시운전자, 대중교통 운전자들에게 테러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했으며 특히 그 지역에 새로 전입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경호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체증을 감수하고 도로를 폐쇄하기도 하였으며 시위대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기도 하였다.

IV. 안전대책 방안

1. 1선의 안전대책 방안

1) 직가시 승하차지점의 차단대책 강구

수행경호원은 VIP 근접경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취약한 장소 중 하나로 승하차지점을 꼽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사시 승하차지점이 직시되는 감제고지에 대해 수색 및 매복활동이 실시되고 직시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역감시조·OP조의 운용, 옥상은 봉쇄하며 로비와 각 층별로 근무자가 배치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승하차지점은 외부로부터 시야가 개방되어 불순세력으로부터 조준사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외에도 경호원은 승하차지점에서 테러범이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찾아내어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선하여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취약요소를 판단하여 차단물을 설치하며 차단물 설계 시 내부로의 2열 진입이나 전개가 가능하도록 폭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단체머스의 출입도 가능하고 조명물의 설치를 고려하여 차단막의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그 외에

도 고층건물이나 각종 시설물로부터 시야를 차단하기 위한 플래카드, 축제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불순세력으로 하여금 공격을 할 수 있는 의도를 사전에 가질 수 없도록 추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만약, 위해정보가 있을 때에는 의전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회의장 내부의 승하차지점을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2) 노출지역에서 근접도보대형 강화

근접도보대형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는 1995. 11. 4. 22:00경 이스라엘 ‘라빈’ 수상의 암살사건일 것이다. 1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텔아비브에서 열린 중동평화정착지시 군중대회를 마치고 시청계단을 통해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Yigal Amir, 25세)가 라빈 수상이 승차지점, 후미 2~3m까지 접근하여 권총 1발을 라빈총리의 등에 명중시켜 피격 1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노출지역에서의 사주경계는 ‘항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위해기도를 사전에 포착하여 무력화 시키겠다는 위기의식과 확고한 사명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머리는 긴장하되 몸은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VIP 주변의 부자연스런 행동과 사전 계획된 의전절차와 상반되는 행동 등은 적신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번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시기는 11월 중순으로 동절기가 가까워져서 VIP가 야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노출지역에서의 도보대형 시 근접경호원은 사주경계에 소홀하면 안 될 것이며 보다 과감한 근접도보대형을 요구된다.

특히, ‘황장엽 암살’을 목적으로 남파됐다가 북한 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하여 지난 2010. 4. 21. 구속된 북한공작원 2명 외에도 국내에 잠입한 북한 간첩으로 의심되는 인물 여러 명의 동태를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2008년 검거된 여간첩 원정화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해 활동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조선일보, 2010. 4. 22일자 A1면). 이들 간첩은 국내 고정간첩 등과 연계하여 총기, 폭발물 등을 지원받아 요인암살을 노릴 수 있으므로 노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근접경호원은 오관과 육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한 사주경계를 실시하고 위해기도 포착에 주력하여야 하며 주의력효과 면에서는 군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지만 대응효과 면에서는 군중과의 거리가 멀수록 유리하므로 경호원은 주의력효과와 대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군중과의 거리를 최소한 4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김현진, 2007: 235-237).

2. 2선의 안전대책 방안

1) 주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입통제대책 강구

주 행사장인 회의장은 일반적으로 각종 메인행사 및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위해 분자들이 행사 참석자나 관람자로 가장하여 사전에 합법적으로 출입하여 위해물질을 은닉, 매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의장내 경비전담부서를 배치하여 상시 안전확보를 위한 준비태세를 강구하여야 하며 경비요원에게 근무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전문적인 경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장 내부에서는 입주업체와 공사 관련자들의 출입이나 공사는 최대한 보장하되 시스템적으로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과학적인 출입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내부 기계실, 공조실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취약시설을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고 출입요소별로 검색장비를 통한 출입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이선기, 2007: 222-223). 정상회의장인 컨벤션홀로 통하는 주요 목에는 출입자 신원 및 반입물품 확인, 작업일지를 비치토록하며 CCTV를 설치하여 2중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의장 외곽로에는 철제 바리케이드와 방호벽으로 차량 통제선을 구축하여 차량테러 등에 대비하고 모든 진입차량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검색을 실시하여 허가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2) 행사비표에 'RFID System'의 도입

행사비표(Security Badge)의 제작·운용업무는 행사장 출입통제를 위한 핵심요소로 전문성을 갖춘 유경험자가 비표제작을 주도하되 우리나라의 최첨단 IT기술력을 바탕으로 비표 내에 RFID 시스템을 내장하여 비표패용자가 이동하는 지점을 블록화하여 불필요한 통행을 통제함으로써 출입구에서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하는데 훨씬 용이하며 불순세력의 회의장 침입을 기술적으로 적발할 수도 있다.

행사비표의 제작 면에 있어서도 선발된 요원은 경호기관의 비표담당자와 같이 비표운용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면서 비표의 실용적 기능인 참석자 구분과 식별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하며 비표 제작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국제행사 경험을 고려하고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차량의 출입통제도 인원에 대한 비표운용과 같은 요령으로 상시 이용차량에 대해 RFID 시스템이 부착된 비표를 제작하여 분출하고 통제선을 설정하며 허가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로 상에 차량 검색탐을 운영하여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통해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3선의 안전대책 방안

1)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첩보 수집 및 해외정보기관과의 공조 강화

영국의 경우 내무성 조직범죄·국제범죄국 테러방호부가 법제도를 포함한 테러대책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안청(SS)은 내무장관의 감독 하에 국내 테러관련 정보 수집, 국내·외에서 수집된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평가와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국외에서의 테러관련 정보수집은 외무장관의 감독하에 비밀정보청(SIS)이 테러방지를 포함한 국가안전보장 상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423) 따라서 우리나라는 특정기관 내에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각 정보기관과도 테러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테러활동에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필요하다.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이 모두 포함된 행사인 만큼 경호기관은 참가국의 경호기관 및 정보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를 통해 발생 가능한 테러와 경호안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경호의 1차 목표는 예방활동이므로 국제적으로 테러에 관한 정·첩보의 교환할 수 있는 사전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2) 경호·행사인력에 대한 비상대책훈련 실시

비상대책훈련은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으로 국제회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꼭 해야 할 훈련이다. 이 훈련 시에는 심야시간 대에 실시하되 CCTV, GPS, 헬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되 소방·민방위훈련을 겸하고 집회시위대책 등을 겸한 실전모의훈련(FTX)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훈련 내에는 테러리스트·암살자의 공격, VIP 기동제대가 시위대와 조우, 화재 및 가스사고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위계임 등을 숙달해야 하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각 상황별, 임무별, 기관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대책훈련은 행사에 관련 부서인 준비기획단, 제 경호경비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필요하며 행사장별로 응급병원을 지정하는 등 행사기간 내 의료진의 Pool제 운용도 실시해야 한다.

3)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 운용

G20 참가국, VIP 제대의 안전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기동제대가 가능한 평균시속 70~80Km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통제 방식이 개선,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차량이 VIP 제대 속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도로상에서 1차선을 순간적으로

확보하거나 주 행사장 주변에는 One-Way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지점에 안내 입간판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교통통제대책을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통해 충분히 홍보해야겠으며 단순하게 회의장을 통과하는 대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원거리에서 우회 조치하여 정상회의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행사장 주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VIP 제대를 책임지고 있는 경호·운전요원과 교통근무자들이 종합적인 교통관리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기습시위 등에 대비한 적절한 모의훈련을 각 구역별로 실시토록 함으로써 교통근무자들이 교통통제업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예행연습은 충분히 숙달될 때까지 반복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참가국 정상 중 호텔에서 예정시간 보다 늦게 출발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회의장 주변 주요 목에 최소 2대 이상의 경찰 사이카를 배치하여 필요시 'Frog-Jump Style'에 의한 VIP제대의 고속주행을 보장한다면 경호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방안

1) VIP 숙소의 효율적인 분산 배치 및 효율적인 통제

각국 VIP의 숙소선정은 가능한 한 참가국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개최국을 제외한 19개국의 숙소를 모두 분산하는 것보다 가능한 3~5개국씩 그룹화하여 집중, 운영하는 것이 경호경비, 교통통제, 의전적인 면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므로 참가국과 사전조율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주 회의장에서 가까운 호텔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통통제 면에 있어서 효과적이겠으나 외교적으로 고려해야 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은 '6자회담국'이므로 특별관리가 가능하도록 분산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숙소선정은 참가국의 의견을 우선하여 고려하되 의전을 담당하는 행사기획단과 경호안전을 담당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상호의견 조율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호텔의 안전점검은 경호안전통제단과 국정원이 상호의견이 일치되어야 호텔측에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VIP 신변보호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꼭 필요한 안전점검은 호텔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 호텔과 호텔 투숙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호텔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호텔이용자의 장·단기 투숙객 현황을 파악하며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투숙객과 일반 투숙객 및 이용객과의 구분을 유도하고 G20 정상회의 관련 투숙객에 대해서는 국가별 전담 책임자를 통제지점에 배치하여 단력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

고 일반투숙객 및 단순 호텔이용자는 별도의 출입구를 통하도록 분리하여 체크포인트를 운용한다면 통제가 편리할 것이다.

2) 다양한 기만작전 활용

제2차 세계대전 시 영국의 처칠 수상은 '기만(Deception)은 기습의 호위병이다'라며 기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다. 역사 속에서 기만은 기원전 1200년 전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일화로 그리스 군사들이 병사를 목마에 숨겨 트로이 성문 앞에 세워 놓자, 트로이 병사들은 그것이 그들의 여신에게 바치는 것 인줄로 믿고 목마를 성안으로 끌어 들여 그리스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트로이를 정복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시 한산해전 당시 이순신장군은 5~6척으로 왜선을 유인한 후 학익진 전술로써 왜선을 기습, 공격하여 대승을 거둔 사례가 있다.

위해기도는 대부분이 암살을 준비한 전문가에 의해 사전 치밀한 계획을 거쳐서 시도되므로 VIP의 모든 면은 감시당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위해기도자를 따돌릴 수 있는 기만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염상국, 1997: 78-81). 국내에서는 경호 기만작전으로 1983년 11월, 미국 레이건대통령이 방한 시 김포공항에서 기만제대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05년 APEC 행사 시 기만코스를 선정, 운용한 바 있다.

기만경호란 위해기도자로 하여금 VIP의 일정, 이동동선, 관습 등을 오관하도록 유인하거나, 위해기도가 실패하도록 실제 상황을 은폐하고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계획적인 경호활동으로 이런 정보가 사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인물, 장소, 시간, 기동로, 기동수단 등에 대한 기만작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만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승하차지점, 기동수단과 기동로를 불규칙·부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만작전을 활용할 때는 극도의 보안유지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3) 북한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른 군사지원대책 강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의 개편으로 국방위산하에 정찰총국이 창설되고 대남 강경파인 김영철 상장이 총국장에 임명되었는데 이 자가 과거 국방위 정책실장으로 있던 2008년 11월, 개성공단에 와서 우리기업들에 '싫으면 나가라'고 협박했던 인물이다(조선일보, 2010. 4.27 자 A29면). 정찰총국은 최근 천안함 침몰 연루설과 '황장엽 암살조' 남파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조직이다. 과거 1969~1970년 군이 대남공작을 책임지고 있을 때 1.21 청와대 습격미수사건, 울진-삼척 대규모 무장공비사건, 美 해군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KAL기 납북사건 등의 침투사례만 보더라도 향후 대남공작이 얼마나 전투화 될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우리도 대북테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어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군사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국방부 주관 하에 행사에 임

박해서부터 전후방 지역에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서울 외곽 및 취약지역의 경계를 강화해야 하며, 화생방테러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대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군 정보부대는 민간 정보기관과 경찰과 긴밀한 상황유지와 유사시 지원태세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민방위훈련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고태세 확립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V. 결 론

새무얼 헌팅턴 교수는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논문에서 제4세대 전쟁으로 문명의 충돌에 의한 전쟁과 같은 메가테러리즘을 예언한 바 있는데 미국은 9·11 이후 테러 근원지를 뿌리 뽑겠다는 바빌로니아 식의 군사용정작전인 아프간·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히려 테러리즘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레바논 파병과 아프간·이라크 전쟁의 군비부담 및 파병으로 알카에다 조직이 노리고 있는 국가이며, 이슬람 과격세력이 친미·참전국에 대한 보복테러를 공언한 바 있고, 국내에는 이들 조직이 노리는 미군시설이 전국에 무수히 산재해 있으며 2010년 7월, 아프간에 350명의 치안지원군을 추가 파병하게 되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사건과 탈북자로 위장한 황장엽씨 암살 공작원을 2010년 4월 21일, 국정원이 검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간 대남공작을 주도해 왔던 조선노동당으로부터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을 신설하였는데 천안함 사건과 황장엽 암살 공작원 남파사건을 정찰총국에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월간조선, 2010 5월호: 98). 과거 軍이 대남공작을 주도하던 1967~1970년 어간에는 1968. 1.21. 124군부대 31명의 청와대 기습사건, 미군 해군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1968.1월), 1968. 11월 울진-삼척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사건(120명 침투), KAL기 남북사건(1969.11월) 등 대형 테러사건을 일으킨 사례를 보면, 軍이 대남공작을 책임지고 있을 때가 당이 책임지고 있을 때 보다 훨씬 전투化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미국으로부터 불기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속도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긴밀한 정책공조가 위기극복의 대안이라는 취지로 시작한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금년 11월에 신흥국으로는 처음으로 의장국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향후 G20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쳤을 때는, 우리나라는 국운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을 경우, 대내외적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

러, 다중이용시설테러, 항공기테러 등이 있다고 보았으며,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과격집단,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민간조직 및 국내·외 단체를 지목하고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행사장에서 VIP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경호원리 중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내 최초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내부)·2선(내곽)·3선(외곽)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의 시야 차단물인 캐노피 및 플래카드, 축제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불순세력으로 하여금 시야가 확보되지 않도록 차단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지역에서 도보대형 시 근접경호원은 보다 과감한 근접도보대형이 요구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회의장 행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의 보완, 경호경비요원에게 업무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회의장 외곽에는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행사비표에 RFID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표운용대책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에 대비하여 정·첩보 수집 등 국내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참가국 정보기관과의 해외정보의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 둘째,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한 경호·행사인력에 대한 상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입체적인 비상대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고속주행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은 첫째, 경호경비, 교통통제, 의전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VIP 숙소의 적절한 분산배치 및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승하차지점, 기동수단, 기동로 등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위장 VIP 제대를 운용하는 등 다양한 기만작전을 운용하여 불순세력에게 혼동을 줌으로써 불순분자의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으로 향후 대남공작이 전투화될 것이라는 추정 하에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군사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 주관 하에 행사에 임박해서부터 전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대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군 정보부대는 민간 정보기관이나 경찰과도 긴밀한 상황유지와 유사시 지원태세를 강구해야 한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각종 테러를 일삼는 불순세력들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테러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G20 정상회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상호 정보교환을 활성화하여 G20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운이 상승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경찰청(2002). 제3차 ASEM 결과보고서, 서울경찰청, 60-63, 131.
- 국가정보원(2005). 2004년 테러정세, 국가정보원. 132, 534-538, 586.
- _____ (2006)b. 2005년 테러정세, 국가정보원, 36.
- _____ (2010). 2009년 테러정세, 국가정보원, 3.
- 국방부(1999). 시사안보교육, 24.
- 김두현(1998). NGOs 논의의 쟁점과 평가, 4, 9.
- _____ (2004). 현대 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101, 106, 119-122, 132-135, 140, 156, 230.
- _____ (2010).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안전대책, 한국경호경비학회, 22: 37-64.
- 김장신(2003). 컨벤션 기획 및 실무, (주)팁스윈, 3.
- 김창순(1996). 김정일 집단의 대 모략과 테러리즘, 대테러연구 19: 24.
- 김현진(2007). 경호학개론, 초당대학교 출판부, 218, 235-237.
- 노택녕(2004). 한국의 뉴테러리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 박용석(2000). 대규모 국제행사시 요인경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60-61.
- 부산광역시(2005)a. 200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준비상황, 부산광역시, 27, 15~16.
- _____ (2005)d. 역대 APEC 개최 사례 - 2003년 태국 방콕 APEC, 부산APEC기획단, 55, 57~58.
- 부산APEC기획단(2005). 2005 부산APEC 준비상황, 부산광역시, 24, 31-32.
- 신광영(1999). NGO와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8권 제1호, 한국행정연구원, 22.
- 안경모(2004). 국제회의 실무기획, 백산출판사, 25-37.
- 안경모·이진찬(2002). 한국 컨벤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8: 5.
- 염상국(1997). 요인경호시 근접경호원에게 요구되는 행동이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8-81.
- 우범형사정책연구원 譯(2000). 범죄학이론, 181~183.
- 육군대학(2001). 적전술 보충교재, 372.
- 외교통상부(2006). APEC개황. 7~28.
- 이상팔(2002).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의 보완점 모색, 입법정보 제7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16.
- 이선기(2007). 뉴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8(4), 128.
- _____ (2007).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3, 219-234.
- 이황우·곽대경(2005). 부산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대테러·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1: 294~320.

- _____ (2005). 부산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대테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78, 94.
- 이호섭(2003). 한국의 대테러정책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
- 최진태(1998). 테러·테러리스트·테러리즘, 6, 37-38, 41-45.
- 특전사(2001). 예상 테러위협분석 및 대비책, 27.
- 한국경제연구원(2010). 서울G20 정상회의 Guide Book, 10~2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OECD국가와 치안역량비교를 통한 21세기 경찰발전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17, 423.
- APEC기획단(2006). APEC 정상회의, 14.

2. 국외문헌

- Everett L Wheeler.(1991). Terrorism and Military Theory : An Historical Perspective, Terrorism & Political Violence, 15.
- Hewitt.(2003). Understanding Terrorism in America : From The Klan to Aloaeda., London: Rout-ledge, 235, 239.
- John Richard thackrah(2004). Dictionary of Terrorism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86.
- Reports on Terrorism 2004(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April, 2005), 58.

3. 기타

- 세계일보 2004. 12. 9. 15면.
- 월간조선(2010). 5월호, 98.
- 조선일보 2010. 4. 27. A29면, 2010.4.22. A1면, 2005. 4. 24. 16면, 2005. 3. 9. 13면, 2004. 4. 11. 11~12면.
- 타임지 2005. 7. 18일자.
- News and World Report (1999) U.S 4. 19일자, 6, 58, 60.
- <http://www.apecbusan.org>(부산시 APEC준비기획단)
- <http://www.police.go.kr>(경찰청)
- <http://www.nis.go.kr>(국가정보원)
- <http://www.naver.com>(네이버)
- <http://www.chosun.com>(조선일보)
- <http://weekly.chosun.com>(주간조선)
-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 <http://www.terrorism.or.kr>(한국테러리즘연구소)
- <http://www.knto.or.kr>(한국관광공사)
- <http://www.gss.or.kr>(이스라엘 치안기관)

Abstract

A Study Security Measures for Protection of VIP in the G20 Summit

Lee, Sun-Ki · Lee, Choong-Soo

The threat factors available for occurrence given G20 Summit Meeting are expected leader terrorism, hostage terrorism, bomb terrorism, public facilities terrorism, and aircraft terrorism. As for the threat groups, which are expected in Korea, the North Korea, Islam extremist group, and the group such as NGO organization of being opposed to international meeting are regarded as having possibility of causing hazar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IP Security-measure plans in the main site in preparation for G20 Summit Meeting. Accordingly, each country in the world is adopting 'the principle of Triple Ring' in common. Thus, it elicited a coping plan by 1st line(inner ring) · 2nd line(middle ring) · 3rd line(outer ring) based on this principle, and proposed even an opinion together that will need to be reflected in light of policy for the VIP security measures.

In conclusion, as for the VIP Security-measure plans in the main site in preparation for G20 Summit Meeting,

In the inner ring(safety sector), first, an intercepting measure needs to be devised for a spot of getting into and out of vehicles given the Straight Street. Second, the Walking Formation needs to be reinforced boldly in the exposed area.

In the middle ring(security sector), first, the control plan needs to be devised by considering particularity of the main site. Second, there is necessity for adopting the efficient security badge operation plan that is included RFID function within security badge.

In the outer ring(aid protective sector), first, there is necessity of preparing for several VIP terrorisms, of collecting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and of reinforcing the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against terrorism under the cooperation with the overseas information agency. Second, the urgent measure training in time of emergency needs to be carried out toward security agent · event manpower. Third, to maintain the certain pace in VIP motorcade, the efficient traffic control system needs to be operated.

Finally, as for what will need to be reflected in light of policy for VIP security

measures, first, there is necessity for allowing VIP residence to be efficiently dispersed to be distributed and controlled. Second, there is necessity for allowing impure element to misjudge or attack to be failed by utilizing diverse deception operations. Third,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in North Korea's Organization of the South Directed Operations, the powerful 'military-support measure' needs to be driven from this G20 Summit Meeting. For this, the necessity was proposed for further reinforcing the front · back defense postu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for positively coping even with detecting and removing poison in preparation for CB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terrorism.

Key Word : G20 Summit Meeting, Security measures, The principle of Triple Ring, Inner Ring(Safety sector), Middle Ring(Security sector), Outer Ring(Aid protective sector)

논문투고일 2010.07.30, 논문심사일 2010.08.18, 게재확정일 2010.09.14